걷기명상, 한강서 시민을 만나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 6월 23일
제1회 한강걷기명상…
2000명 규모 대회 개최

소외계층 위한 기금 모연
후원앱 활용, 1보당 1원
시민 명상상담 및 안내도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5월 29일 한국명상지도자협회가 진행한 숲속걷기명상 프로그램의 모습. 6월 23일에는 2000여 명이 참가하는 한강 걷기명상대회로 열린다.

서울시민들이 불교 걷기명상을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대규모 명상축제가 열린다. 불교계 명상단체들의 모임인 '한국명상지도자협회'(협회장 혜거)는 6월 23일 한강 여의도공원 물빛무대 일원에서 '명상, 한강을 걷다' 제1회 대회를 개최한다.

1회 대회는 걷기명상을 주제로 한국명상지도자협회 회원단체인 금강선원, 행불선원, 참불선원 등 20여 단체에서 약 2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오전 9시부터 가족놀이와 걷기와 관련된 건강상담, 명상체험 등을 할 수 있으며, 명상음악 공연 등이 진행된다. 또 행불선원장 월호 스님의 사회 아래 개회식이 진행되며,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의 대회사, 조계종 포교원장 지흥 스님의 인사말,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격려사, 서울시장 당선자의 축사 등도 이어질 예정이다.

개회식 후에는 물빛무대에서 바이크 페리선착장까지 약 3.3km 구간을 걸으며 각 단체별 단체티 및 팔찌를 맞춰 구분할 수 있게 했다. 행렬 정리는 조계종 포교사단이 맡는다. 이와 함께 각 명상을 지도하는 불교명상 전문지도사 20명이 일반인들의 안내를 담당한다.

한강걷기대회 홍보위원장 월호 스님은 "이번 대회는 늘어나는 명상에 대한 관심 속에 불교 명상에 대한 소개의 장이 될 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을 위한 목적도 지니고, 건강 점검도 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참여해 불교명상을 접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소외계층 기금마련을 위한 것으로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걷는도시 서울' 캠페인과 함께 진행된다. 캠페인은 '워크온' 앱을 통해 1보당 1원 가치의 마일리지가 적립돼 서울시 캠페인을 후원하는 기업에서 소외계층에 직접 이 마일리지 만큼의 생필품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걷기명상 기준으로 1인당 6000보 가량이 예상돼 2000명 기준 약 1억 2000만원이 소외계층 후원 기금으로 모금될 예정이다.

조직위원장 선업 스님은 "서울시의 후원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서울시측의 반응도 좋기 때문에 향후 대회를 정례화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수행의 첫걸음은 자기성찰이다. 시민들이 스스로를 한번 들여다 보는 기회를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야불교문화연구원 8회 반야학술상 공모

오는 7월 15일까지 접수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안)은 오는 7월 15일까지 제8회 반야학술상을 공모한다.

저술상과 논문상으로 나눠 공모되는 반야학술상은 최근 2년 내에 출간 · 발표된 불교학 및 불교문화 관련 저술과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응모자는 추천서와 이력서, 논문 PDF 파일을 첨부해 guguis@hanmail.net으로 보내면 된다. 저서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백주년기념관 4층 불교사회문화연구원으로 송부해야 한다.

저술상과 논문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5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시상식 일정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한편, 불교학 및 불교문화 우수 연구자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반야학술상은 매년 저술상과 논문상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문의 (010)4731-3471

신성민 기자

신행 · 신앙 전문 연구 초석을 놓다

한국불교학회 제1회 성운학술상 시상식 · 춘계학술대회



제1회 성운학술상 수상자들과 상을 제정한 성운 스님(사진 왼쪽 네번째). 사진 왼쪽 첫번째인 이금순 박사는 지난해 작고한 어머님을 생각하며 염불신앙에 대한 연구논문을 썼다며 대중에게 감동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국불교학회가 5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2018춘계학술대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불교학 진흥에 대한 대중들의 열망이 느껴졌다. 제22대 한국불교학회장 임기를 마친 학회장 성운 스님이 성운학술상을 제정, 처음으로 시상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학회장을 회향하며 만든 학술상의 제정에 역대 불교학회장을 비롯해 학자, 신도대중 300여 명이 모여 축하했다.

성운 스님은 이날 "종교의 생명력은 그 안에 들어 있는 사상과 철학이 어떻게 정립되어 있는가에 달려있다. 또 이러한 사상체계를 발전하는 사회에 풀어내는 데 달려있다"며 "임기동안 나무가 꽃을 핀 상태에서 약간의 가지치기만 했다고 생각한다"며 상을 만든 취지와 학회장으로서의 회향소감을 밝혔다.

시상식에서는 황상준 전자불자문화콘텐츠연구소 연구초빙교수와 김은영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이 우수상을, 황금연 서울불교대학원대 외래강사, 서정원 동국대 불교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대공 스님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수상자들은 "값진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더욱 정진하여 염불신앙을 비롯한 다양한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한국불교학회는 '불교와 불교학, 현재의 반성과 미래의 지향-인간을 고민하는 불교학의 필요성'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불교학 연구에 있어서 문헌학적 연구의 한계와 전망(강형철/ 동국대) △불교사상사 연구, 개념과 현실 사이의 잃어버린 접점(석길암/ 동국대 경주) △불교사 쓰기의 오류와 방법론적 극복(한지연/ 금강대) △법화경에 나타난 신행과 전법-불교포교방법론의 반성(혜명 스님/ 동국대 경주) △염불신행에 대한 불교학적 고찰(송재근/ 창원대)이 발표됐다.

또한 제1회 성운학술상 우수상 수상작인 '염불신앙을 통한 현대재가불자의 가피사례 연구(황상준)'와 '교육과정 텍스트로서의 정토삼부경의 재조명(김은영)'도 대중에게 소개됐다.

신성민 ·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The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다 ⑨

오달연 영남대학교병원 호스피스 봉사자

"호스피스는 나를 다스리는 길"



오달연 봉사자가 생일파티를 열어 생일을 맞은 어르신들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다.

1996년부터 영남대학교병원에서 봉사를 해 온 오달연 씨는 2005년, 봉사팀장의 권유로 호스피스 봉사를 시작했다. 오 씨는 1996년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영남보현자원봉사단을 설립해 지금까지 단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 지역 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에서 활동하고 있다. 오 씨는 어머니를 간호하던 당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환자와 보호자를 돕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불자인 오 씨는 봉사를 통해 스스로 다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봉사활동 중 만났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린 초등학생 아이가 호스피스에 온 적이 있었어요. 그 아이는 죽음의 목전에서 자신의 삶을 정리했죠. 아이는 친구들을 불러 한 명씩 얘기를 했어요. 용서해주고, 잘못한 일 있다면 사과하고 화해를 했죠. 어린 나이인데도 어른도 못하는 일을 의연하게 해내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점이 많았습니다."

봉사를 통해 인생공부를 할 수 있었다는 오 씨는 호스피스 봉사뿐 아니라 홀몸노인들에게 밑반찬을 조리해 배달하고, 후원금도 지원하고 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양질의 봉사를 꾸준히 해온 오 씨는 가장 기억에 남는 대상자로 50대에 뒤늦게 결혼식을 올린 말기암 환자를 회상했다.

"장성한 딸이 있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못 올린 50대 말기암 환자에게 결혼식을 올려준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스님이 주례를 맡아 병원법당서 진행했는데 한복을 차려입은 부부가 입장하자 장내는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그 분은 1달 후 운명했습니다. 사별가족모임에서 고인의 노모가 참석해 자식의 영상을 보며 고개 숙여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던 모습이 선합니다."

오 씨는 환자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주로 환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준다고 설명했다. 말기암 환자들과 가족처럼 지내기도 하지만 임종하는 환자가 있을 땐 마음이 아프다고 한다.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오 씨는 대구자원봉사대상 개인 본상, 국제라이온스 대구 총재상 등을 받은 바 있다. 호스피스 봉사를 하면서 임상웃음치료 자격증도 갖고 있는 오 씨는 시간이 되면 호스피스 심리상담도 하고 싶다는 포부다.

"호스피스 대상자가 불안하지 않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편안하게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호스피스는 대상자뿐 아니라 봉사자의 삶도 바꿀 수 있습니다. 봉사를 하며 자아를 찾을 수도 있고요. 진지한 마음가짐과 충분한 교육이 동반된 호스피스 봉사자가 앞으로도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진형 기자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는?

말기질환 환자 및 가족들의 생명존엄성을 높이기 위한 불교 호스피스 단체로서 2009년 창립됐다. 각 지역 · 지부 불교호스피스 활동을 총괄하며 조계종 승려연수 일환으로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1기를 모집 중이다.

▶조계종 승려연수교육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승려연수 30점 인증

①임상과 수행의 만남 ②환자의 심리와 욕구 ③영적 대화기법 ④죽음 현상들에 대한 직관 ⑤임종간호와 영적돌봄의 실제 ⑥불교의 생사관과 정토신앙 ⑦불교적 임종의식과 입관의식 ⑧임종시점에서 西歸直指의 방법론

- **교 육 비** | 25만원(법납 10년 미만 및 학인스님 5만원 감면)
- **접수문의** | 052)255-8522, 8524, 8530 / www.kbha.kr

